

# 농업법인도 고전...코로나에 고용난·영세화 심화

## 농식품부 '2020년 농업법인 조사'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광주·전남 농업 법인은 234개사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오히려 65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이 1억원이 안된 법인 비중은 두 지역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역 농업 법인 수는 광주 398개·전남 4023개 등 4421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광주는 24개(6.4%) 증가하고, 전남도 210개(5.5%)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영농조합법인은 7개(-9.9%) 줄어든 64개, 농업회사법인은 31개(10.2% ↑) 늘어난 334개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2159개로 전년보다 25개(1.2%) 증가하고, 농업회사법인은 1864개로 185개(11.0%) 늘었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설립한 농업경영조직을 말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작물재배업

## 광주·전남 234개 늘었지만 종사자 655명 줄어

### 전통적 생산 작물재배업체 줄고 도소매업 증가

### '매출 1억 미만' 광주 28.4%·전남 44.4% 달해

이 광주 74개·전남 1271개 등 1345개로, 전체 농업 법인의 30.4%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광주에서 14개, 전남에서 33개 줄어 들었다.

축산업체는 광주 7개로 전년과 같았지만, 전남은 5개 줄어든 262개로 조사됐다.

농축산물유통업(도소매업)은 농업법인의 29.4%(1301개)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전년에 비해 212개(광주 39개·전남 173개)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법인은 광주가 2개 늘어난 3개, 전남은 8개 늘어난 116개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농업법인은 1년 새 234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 수는 655명이나 줄었다.

2020년 농업법인 종사자는 광주 1208명·전남 2만709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17명(-25.7%)·238명(-0.9%) 감소했다. 1년 새 종사자가 줄어든 시·도는 강원(-1075명)과 광주, 대구(-273명), 전남, 경북(-101명) 등 5곳이다.

이외 경기(3899명 ↑)와 충남(2178명 ↑), 전북(1214명 ↑) 등 종사자가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8702명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광주 농업법인에서 상시 종사자 수는 1112명으로, 92.1% 비중을 차지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7.9%(96명)이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6명 있었다.

반면 전남 농업법인은 상시 종사자 63.8%(1만 7293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36.2%(9804명) 등으로 나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707명이 일했다.

전남 임시·일용직 비중은 전국 평균(29.5%)를 크게 웃돌았고, 제주(47.7%), 강원(37.4%)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반면 광주 임시·일용직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법인당 종사자 수는 광주 3명·전남 6.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3명·0.5명 감소했다. 전국 평균 법인당 종사자 수는 6.9명으로, 광주는 17개 시·도 중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법인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16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0년 법인당 매출액은 광주 23억8100만원·전남 12억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광주는 1억6000만원(-4.3%) 줄고 전남은 600만원(0.5%) 늘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5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울산, 강원과 하위권에 들었다.

법인당 연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3억 7800만원)이었고, 전국 평균은 17억4600만원이었다.

전남 농업법인 평균 매출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연매출이 1억원이 되지 않는 농업법인은 광주 113개·전남 1787개로, 각각 28.4%·44.4% 비중을 차지했다.

매출 1억원 미만 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광주는 6.1%포인트, 전남은 4.1%포인트 증가했다.

종사자가 4인 이하인 영세기업 비중도 광주 83.9%(398개 중 334개), 전남 66.9%(4023개 중 2691개)에 달했다.

법인당 당기순이익은 광주는 30.0% 증가한 6500만원, 전남은 116.7% 늘어난 3900만원을 기록했다. 법인당 자산은 광주 13억100만원·전남 12억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 감소, 2.8% 증가했다. 부채는 광주가 6.1% 늘어난 8억4100만원, 전남은 3.8% 감소한 8억2700만원을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산'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상업운전 개시

## 한전 등 '팀 코리아' 작년 1호기 이어 원전 기술력 입증

### 2800MW 생산...UAE 내 무공해 청정 전력 2배로 증가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UAE 원전산업의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 바라카 원전 2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ENEC는 "바라카 원전 2호기가 오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1400MW의 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동 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를 합하면 원전 발전량은 2800MW가 된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4기(총발전용량 5600MW)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한전은 2009년 12월 이 사업을 수주해 2012년 7월 착공했다.

한전 외에 한국전력기술(설계), 두산중공업(제작), 현대건설-삼성물산(시공), 한국수력원자력(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국내 우수 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꾸려 사업 전반에 참여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호기는 지난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3월 연료장전 및 8월 최종임계 도달 이후 시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쳤다.

한전은 이번 2호기가 1호기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업운전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재차 입증하는 동시에 제2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UAE 원전은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 향후 60년간 UAE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향후 원전 4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전력 수요의 25%를 책임진다.

한전은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 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해 UAE 정부가 추진하는 '2050 넷제로 탄소저감 정책' 달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호기는 지난해 건설을 완료하고 현재 UAE 규제기관의 운영허가 승인 취득을 준비 중이며, 4호기는 올해 고온 기능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팀코리아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산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UAE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이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촌인력 중개센터 발대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가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지석동 대촌농협 본점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사업 5년차를 맞은 대촌농협은 연간 농작업 인력을 전년보다 5000명 늘린 2만명 중개할 계획이다.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가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지석동 대촌농협 본점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사업 5년차를 맞은 대촌농협은 연간 농작업 인력을 전년보다 5000명 늘린 2만명 중개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신보, 상반기 신입 직원 채용

### 지역인재 24명 등 67명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6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사무 인력 60명 중 24명은 비수도권 인재로 채용한다. 호남권 2명과 경남권 3명, 충청권 2명은 5년 이상 해당 지역 장기 근무 채용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외 ICT·데이터 전문인력 7명도 모집한다.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보는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역인재 채용특별제'도 운영한다.

입사 지원은 다음 달 7일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kodit.saramin.co.kr)에서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6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함평·장성 등 조달청 '해외 진출 유망기업' 선정

올해 1분기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패스) 35개사 가운데 함평과 장성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함평 주식회사 케이알과 장성 주식회사 성동테크가 지정서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올 1분기 G-패스 신규 선정기업은 총 35개사이다.

G-패스 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을 위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LED조명등, 태양광가모등을 주력 생산하는 함평 케이알은 수출 거점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정했다. 카메라를, 철케이스를 생산하는 장성 성동테크의 거점국가는 중국이다.

이번 지정으로 2013년 69개사로 출발한 G-패스 기업은 총 1056개사로 확대됐다.

지난해 G-패스 기업 393개사는 157개국에 12억 5000만달러(1조5200억원) 상당 수출성과를 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영암축협은 한우농가 4개 농장 인근에 라일락과 황금촉매 300여 주를 심었다.

이는 축산 농장에서 나오는 냄새확산을 방지하고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농협은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축산 농장을 만들기 위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 전남 68개 농가에 7000주 가량 편백과 라일락, 홍가시 등 방취 용도 나무를 공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와인 최대 70% 할인

24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와인하우스'에서 이달 말까지 일주일간 진행하는 '와인창고방출전'에 내놓을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800여 가지 와인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재직자 직무 교육

### 내달 1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음달 13일부터 정보보호 분야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마련했다.

2022년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K-월드) 양성 교육'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3-4일) ▲K-월드 단기과정(2-4일) ▲K-월드 정규과정(8-10일)으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정보보호 산업계 실무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부 과정을 개편하고 3개 신규 과정을 개설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과정은 'K-월드 리버싱을 통한 프로그램 인증우회 및 악성코드 구조분석'과 'K-월드 침투테스트 전문가' 'IT·OT 프로토콜 취약점 분석과 증거수집 실무기법' 등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생 본인의 직무경력, 기존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해 수량이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사이버보안인재센터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기업 재직자는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누리집(academy.kisa

.or.kr)에서 접수 중인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진흥원은 교육과정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최정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 가능한 강사를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모집하고 있다.

윤승환 센터장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해, 보안이 내재화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진흥원은 이번 K-월드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계가 필요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9.66 (-5.39)
↑ 코스닥	931.75 (+1.18)
↑ 금리(국고채 3년)	2.455 (+0.029)
↑ 환율(USD)	1218.80 (+5.0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